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9월 미 근원 물가 지수 0.5% 상승
- Bloomberg: 이코노미스트들, “연준, 다음주 금리 0.75% 인상... 전체 금리 5%로”
- WSJ: 미 임금 3분기에 ‘경충’ 올라... 인플레이에 압력
- CNBC: 미국인 40%가 연방 소득세 안 낸다... 작년보다 줄어
- The Economist: '바이드노믹스' 리스크는 인플레이보다 더 문제다

[글로벌 경제]

- WSJ: 국제 갈등이 글로벌 성장과 물가 안정 해친다

[에너지]

- WSJ: 흔히 알려진 휘발유 가격, 평균값과 다른 이유
- WSJ: 화석연료 수요 수년 내 정점 찍는다... 지금은 일시적 에너지 위기 탓

[부동산]

- CNN Business: 연준, 주택 시장 죽인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우려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美 빅테크 '실적 쇼크'...애플·아마존도 올렸다
- 연합: IMF, 중국·아시아 성장률 전망치 낮춰..."中 올해 3.2% 예상"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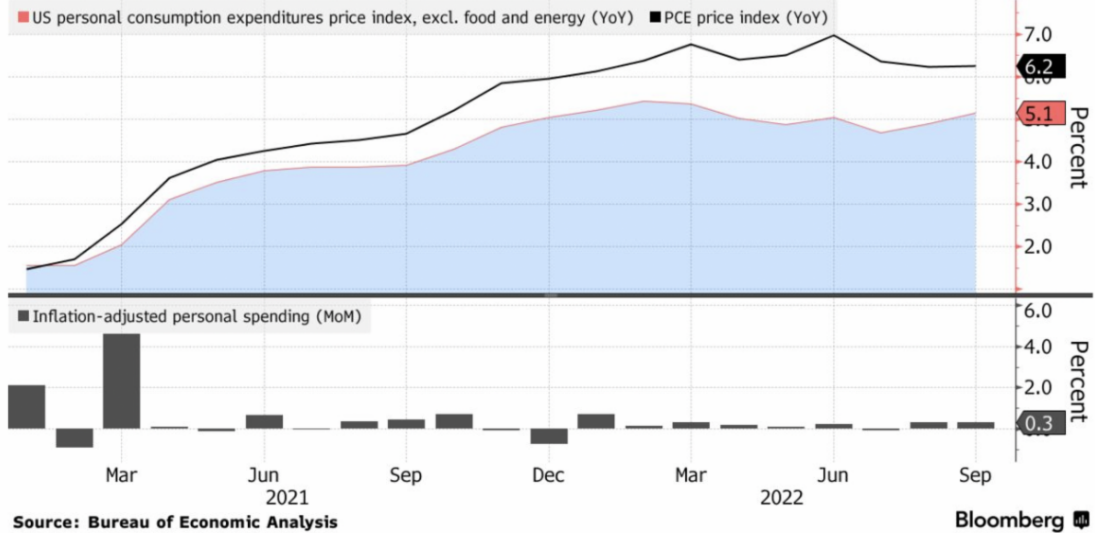
Bloomberg: US Core PCE Inflation Picks Up While Consumers Show Resilience

9월 미 근원 물가 지수 0.5% 상승

- 소비 지출이 아직 탄력적인 상황에서 변동 가격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9월에 가속화됐다.
- 이같은 광범위한 물가 압력과 강한 소비로 인해 연준이 다음주에도 금리 인상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오늘 금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연준이 예의 관찰하는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9월 수치가 전월에 비해 0.5%가 상승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서는 5.1% 상승해서 8월 연간 상승률보다 높았다.
- 근원이 아닌, 전반적인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9월에 0.3% 올랐고(8월 대비) 지난해의 9월에 비해 6.2% 올라 연준의 2% 평균 물가 목표에는 한참 차이가 난다.
- 가격 변동을 감안한, 상품과 서비스 소비는 지난달에 보다 높은 0.3%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늘었다는 의미다.

Underlying Inflation Accelerates

A key gauge of inflation picked up steam in September, spending rose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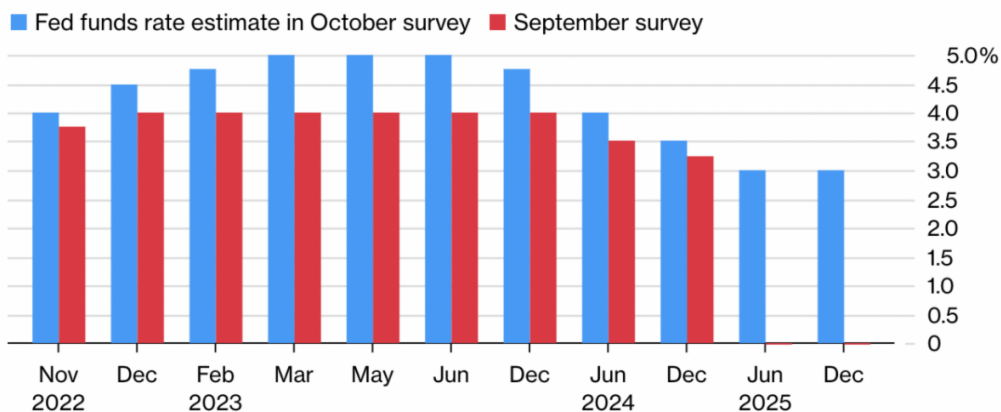
Bloomberg: Fed Seen Aggressively Hiking to 5%, Triggering Global Recession

이코노미스트들, “연준, 다음주 금리 0.75% 인상...전체 금리 5%로”

-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 다음주에 연준이 0.75% 금리를 인상해 내년 3월까지 금리 수준이 5%에 도달해서 미국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응답했다.
- 연준 발표는 다음주 수요일 오후 2시다.
- 응답자들은 12월에 추가로 0.5% 그리고 그다음 두차례에 걸쳐 0.25%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올해는 4.4%, 내년에는 4.6%가 되며 2024년에는 내린다는 것이다. 응답자 75%는 연준이 너무 가파른 금리 긴축 정책으로 실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ates Heading to 5% i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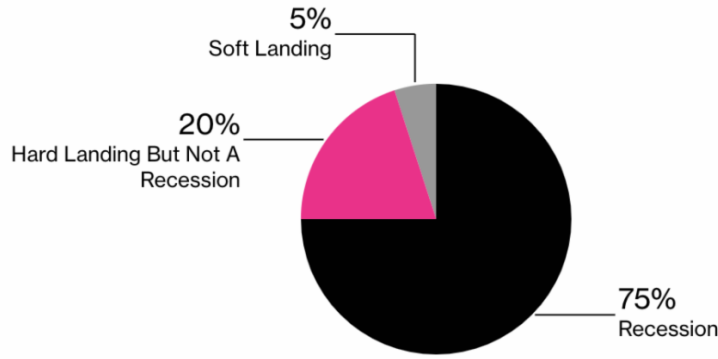
Economists see 75 basis-point hike, then downshifting



Source: Bloomberg survey of economists October 21-26

Three-Quarters of Economists Expect a US Recession

Survey shows a new consensus for a downturn in next 24 months



Bloomberg News survey of economists October 21-26
Economists were asked if US would have a recession in the next 24 months. Hard landing is defined as zero or negative growth for a time but not an officially declared recession.

Bloomberg 기사

WSJ: U.S. Wages Rose Rapidly in Third Quarter, Keeping Pressure on Inflation

미 임금 3분기에 '깡충' 올라... 인플레이에 압력

- 근로자들 임금과 베네핏이 전년도 대비 3분기에 빨리 올라 인플레이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 고용주의 근로자 임금 및 베네핏 비용 지불 수치인 '고용 비용 지수'가 전년도 3분기에 비해 5% 올랐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금요일 밝혔다. 2분기를 연간 비교한 것 보다 다소 낮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전보다는 높은 수준.
- 분기 단위별 비교로는 2분기 1.3%에서 3분기에는 1.2% 상승했다(계절 조정치).

Total compensation for all civilian workers, change from a year earlier



Source: Labor Department via St. Louis Fed

WSJ 기사

CNBC: More than 40% of U.S. households will owe no federal income tax, down from last year, according to a new analysis 미국인 40%가 연방 소득세 안 낸다... 작년보다 줄어

- 미 연방 조세정책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0%에 해당하는 7천 2백 50만 가구가 2022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율은 2020년 59.3%와 2021년 56%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 팬데믹 기간 동안 세금 공제 및 실업률 증가로 “비납부자(non-payer)”의 수가 급증했다. 게다가 감세 및 일자리법 이후 사실상 표준공제가 두 배로 늘어났고 이 금액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방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도 늘었던 것이다.
- 하지만 현재는 실업률이 최저 수준이고 많은 정부 지급과 세액 공제가 종료됨에 따라 비납부자의 수가 다시 줄었으며, 2023년에는 실업률과 불황 등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비납부자의 대부분은 부유층이 아닌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는 3만 달러 이하를 벌고, 28%는 3만~6만 달러를 벌고 있다. 19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 중 약 0.6%만이 올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he Economist: The risks of Bidenomics go beyond inflation '바이드노믹스' 리스크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문제다

- 바이든과 민주당의 중간 선거가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퍼주기'와 보조금 지급이 득표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년동안 일자리 창출, 탈 탄소 추진, 제조업 진흥, 인프라스트럭처 재 건립, 국내 산업 위한 보조금 지급, Buy America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에 미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 한가지 예를 보면, IRA로 인한 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 정책 때문에 유럽과 한국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WTO 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다. 결국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전기자동차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
-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와의 연대인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에게 "서구 보호주의는 글로벌 룰을 위반하지 않을 때만 글로벌 룰을 강조한다"는 구실을 줄 수 있다.
- 미국의 파워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패쇄적인 경제 정책이 아닌 개방적일 때 가능하다. 그럴때만 기술적인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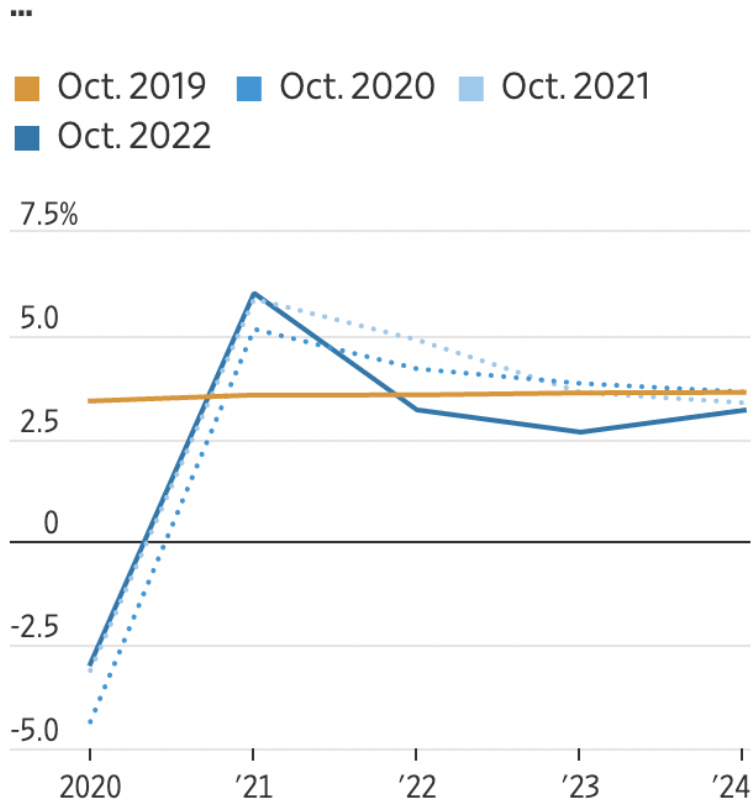
The Economist 기사

[글로벌 경제]

WSJ: International Discord Undercuts Global Growth, Worsens Inflation 국제 갈등이 글로벌 성장과 물가 안정 해친다

- 서구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과 사우디와 갈등을 벌이면서 국제 경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글로벌 경제 위축 원인이다.
-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증산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관련 장비의 수출을 중국에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우방국들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 한마디로 30년전 조지 부시 대통령 때의 글로벌 경제 때와는 달리 글로벌 갈등이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경제적인 생산성과 수익을 찾아보기 힘들고, 주식시장은 악화되고 임금 성장세도 악화되는 것이다.

Global GDP Annual Growth Estimates, as of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다보면 수요 진작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화 구축에 서로 협력했던 2007-09년의, ‘강대국간의 협력 가능성’이 힘들게 된다.
- 한편, 현재 글로벌 공급망 완화로 글로벌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전반적인 글로벌 인플레이 압력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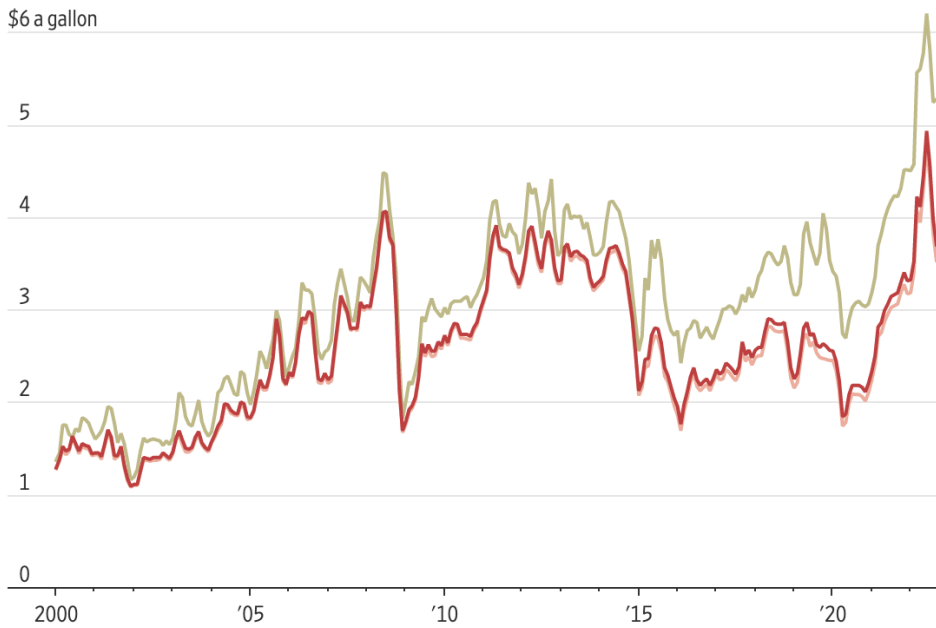
[에너지]

WSJ: Why the Most Common Gas Price Is Far From Average 흔히 알려진 휘발유 가격, 평균값과 다른 이유

- 백악관은 이달 통계를 인용해 현재 미국 주유소에서 가장 흔한 가격이 갤런당 3.29 달러라고 밝혔다. 불과 이틀 전 AAA(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가 일반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갤런당 3.79달러로 발표한 것과 무려 50센트 차이 나는 상황이다.
-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기름값이 핵심 쟁점인 만큼 평균값, 중간값, 최빈값 중 어떤 것을 보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행정부가 발표한 최빈값보다 평균값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캘리포니아의 정유소 폐쇄로 인한 휘발유 가격 급등에 의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휘발유는 다른 곳보다 갤런당 2달러 더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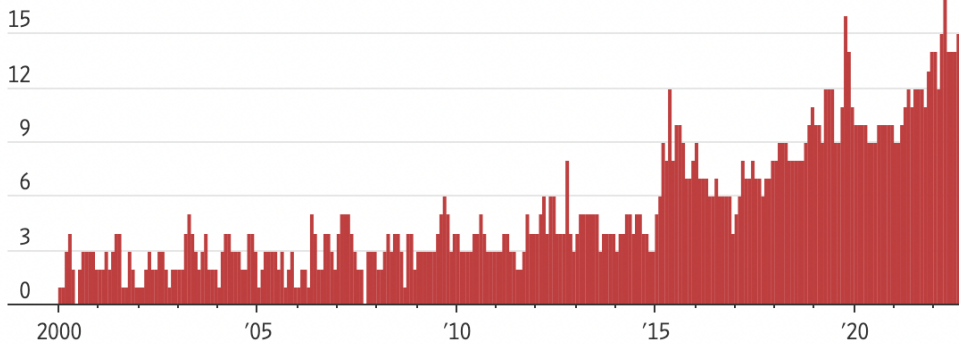
Retail gasoline price, monthly average

■ U.S. ■ U.S. excluding California ■ California



How much California raises the U.S. average

18 cents a gallon



Note: All gasoline formulations shown

Source: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via Berkeley University's Energy Institute at Haas

WSJ 기사

WSJ: Peak Fossil-Fuel Demand Is Possible in a Few Years, IEA Says 화석연료 수요 수년 내 정점 찍는다... 지금은 일시적 에너지 위기 탓

- 국제 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인해 2020년대 후반기에 화석연료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IEA는 전쟁과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겪으며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도록 촉진했다며, 화석 연료의 수요는 약 5년 후 정점을 찍고 2050년까지 지속되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이런 IEA의 시나리오는 화석연료에 대한 세계 수요의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며,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만 가능하다.
- 많은 에너지 경제학자들은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의 계획이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과 전력 부족 등의 사태로 인해 유럽 각국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다시 가동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WSJ 기사

[부동산]**CNN Business: The Fed is killing the housing market
연준, 주택 시장 죽인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우려**

- 미국 경제가 3분기 2.6% 성장률을 보이며 예상을 뛰어넘은 것과 달리 주택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의 영향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서며 9월 신규 주택 판매량은 8월 대비 10.9%, 1년 전 대비 17.6% 감소했다.
- 부문별 3분기 경제성장률에서 주거투자 부문은 지난 6~9월 연 26.4%로 위축되었다. 이에 GDP가 1.37% 포인트 하락하는 큰 영향을 받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추세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주택 시장은 용자 차입 비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다른 시장보다 연준의 정책에 일찍 영향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주택 시장의 침체는 경제 전반의 침체에 대한 전조이며, 더 광범위한 미국 경제의 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美 빅테크 '실적 쇼크'...애플·아마존도 울었다
- 연합: IMF, 중국·아시아 성장률 전망치 낮춰..."中 올해 3.2% 예상"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美 5대 빅테크 '블랙 위크'...시총 1360조 원 증발**

5대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이 이번 주에만 1360조 원 증발했다. 3분기(7~9월) 실적의 '어닝쇼크'가 이어진데다 연말 소비 둔화가 예상되며 주가가 폭락한 탓이다.

27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뉴욕 증시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2.3% 폭락하며 빅테크 '블랙 위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추수감

사절과 크리스마스가 있어 미국 소비의 최대 성수기인 4분기(10~12월) 실적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보다 150억 달러나 밀돌면서 주가가 폭락한 것이다.

전날 어닝 쇼크에 이날 주가가 25% 폭락한 메타를 포함해 5대 빅테크(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시총이 이번 주에만 1조 달러에 가까운 9540억 달러(1360조 원)이 날아갔다. 5대 빅테크 기업 시총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 7조2040억 달러(1경200조 원)에서 6조2500억 달러(8850조 원)로 13.2% 줄어든 것이다. 아마존 주가 폭락에 따라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개인 자산도 230억 달러(32조 원)가 줄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